기아 대전서비스센터, 무주종합복지관 경차 지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은 기아(주) 노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진행한 기아 노사합동 사회공헌사업활동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경차(레이)를 받았다. 전달식에는 기아(주) 대전서비스센터 손현배센터장과 조용철 대전서비스센터 노조위원장, 유대종 고객지원팀장, 무주군의회 송재기, 황인동 의원,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이홍교 관장과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안전한 운행을 당부하고 향후 차량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홍교관장은 "기아(주) 대전서비스센터가 농촌지역 장애인과 어르신 복지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차량을 지원해 주셔서 복지 서비스 전달에 큰 힘이 되며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찾아가는 재가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집에서도 장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무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복지관 사업에 관심과 지원으로 더욱 살기 좋게 변화하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기아(주) 대전서비스센터 손현배센터장은 "기아(주) 노사가 사회공헌활동과 오랜 기간과 여러 지역에 봉사를 하였고, 이번 무주지역은 산간지역으로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하게 되어 뿌듯하다.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복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무주군의회 송재기 의원은 "복지 서비스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량을 지원해 주신 기아(주) 대전서비스센터 임직원에 감사하고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격려한다."고 전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미네르바학부, 완주 경천애인마을 체험 탐방

전주대학교 미네르바학부는 지난 9월 28일 완주군 경천애인마을에서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체험 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을 주변의 플러깅(산책하며 쓰레기 줍기)을 시작으로 생강청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의 성공 사례를 체험하고, 학생들에게 지역 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실무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미네르바학부 및 학생회가 공동 기획했다.

경천애인마을 이수민 사무국장의 설명을 시작으로 미네르바 학부 학생들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의 과정을 직접 체험 및 농촌 지역의 자원 관리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네르바학부 장현애 교수는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 보호와 지역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대강면, 이불빨래 봉사활동 진행

남원시 대강면은 지난달 28일, 적십자 지산봉사회(회장 정미숙) 회원 20명과 관내 취약가구 40을 대상으로 이불빨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이불빨래 탈수차량 지원은 대한적십자 전북지사에서 협조하였으며, 급수지원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강석마을 이장(양재청)은 "독거노인이 많은 우리 마을에 이불빨래 봉사가 꼭 필요했었는데 지산봉사회에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이 뽀송뽀송한 이불을 가슴에 안고 흡족해 하시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종표 대강면장은 "지산봉사회 회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명장' 1인 선정… 장인정신 드높여

군산시, 41년간 잠수 직종 종사 박해영 한국해양개발공사 대표 선정

박해영 대표

군산시는 지난 30일 2024년 군산시 명장으로 잠수 직종의 (유)한국해양개발공사 박해영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명장은 우수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고 숙련기술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해 명장 신청자를 공개 모집하여 매년 3인 이내의 명장을 선정한다.

지난 19일 군산시 명장심의위원회는 서류 및 현장 심사로 숙련기술인 자격을 검증했고,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의 의결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유)한국해양개발공사 박해영 대표는 41년간 잠수 직종에 종사하면서 잠수 기능사, 국제다이빙강사, 등 다양한 자격을 취득했으며, 다수의 제품 개발과 특허 등록, 서적 저술 등을 통해 잠수 기술을 널리 알려왔다.

또한, 119구조대원 민관 협동 인명구조 훈련 및 민간해양구조대원 합동훈련, 수중구조 정화 활동 등 숙련기술을 활용한 자원봉사도 꾸준히 실시해 주위의 귀감이 되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예비조사위원으로서 현장검증과 해양 구조 기술 검토 등에 매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등을 인정받으면서 2024년 군산시 명장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시는 선정된 명장에게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시 누리집 명장 코너에 등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장 홍보 소책자를 제작해 홍보함으로써 명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시 명장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당 직종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과 해당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명장인의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 명장을 발굴해 기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숙련기술자가 자부심을 갖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명장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수정과한울타리협의회 '제2회 전북자치도 가요제' 성료

수정과한울타리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이 주관하는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가요제'가 지난달 28일 완산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전주사랑을 위한 이번 제2회 가요제는 문화예술의 도시, 예향의도시,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흥과 멋의 도시 답게 노래를 사랑하는 도민들의 축제된 행사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을), 김희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전윤미 전주시의회 의원, 이수정 수정과한울타리협의회장, 황금석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회장, 김양옥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이사장, 백현규 수정과한울타리협의회 이사장 등 내빈들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가요제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0명이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기량을 맘껏 발휘했다.

가요제 대상의 영광은 정영숙(전주시)씨에게로 돌아갔다. 김종천(진안군)씨는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정민(익산시)씨는 우수상을 수상받았고, 유효정(전주시)·이단비(전주시)씨는 우등상을 수상받았다.

또한, 오기진(익산시)씨와 최승권(익산시)씨는 장려상을 수상받았으며, 이선영(익산시)·장복영(완주군)씨는 인기상을 받았다. 문동영(전주시)씨는 도전상을 받았다.

함께 진행된 공로자 표창 수여식에서는 이수정 협의회장이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받았고, 남윤향씨는 전주시장 표창을, 황금석 전북회장은 전주시의회 표창을 수여받았다. 백현규 이사장은 단체공로패를 수여받았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이달의 혁신 주인공' 보건환경연구원 하이빈 주무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하이빈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달의 주제는 '새내기 공무원'으로,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송상재 노조위원장이 직접 격려했다.

하이빈 주무관은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업무환경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혁신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주도한 개선 활동 중 하나는 청원경찰실(당직실)의 환경 개선으로, 벌레 유입을 막기 위한 퇴치제 설치, 실내 암막 커튼 장착, 샤워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직원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이빈 주무관은 직원들의 출장 후 세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장 세차 서비스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불필요한 세차장 방문을 줄일 수 있었으며, 출장 후에도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말 및 출장 세차 서비스 편의를 높이기 위해 키박스를 설치하여 더욱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이만호 기자

제10회 진안홍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성료

진안군파크골프협회(회장 유기봉)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진안 파크골프장에서 '제10회 진안홍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자 4개, 여자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남자부에서는 박현복(대전광역시) 선수가 여자부에서는 김미영(대전광역시)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유기봉 회장은 "이번 전국대회로 진안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숙박과 농산물 판매, 식사 등으로 인해 우리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진안군체육회 및 진안군파크골프협회 관계자분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남원 왕정동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전기시설 보수

남원시 왕정동 복지기동대(대장 김종숙)는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지원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의 안전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업 지원은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해 노후주택 관리 어려움으로, 얽힌 전선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생활하여 화재 및 감전 등 안전 문제에 노출되었으나 경제적 문제로 주택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왕정동 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시설 보수 공사 및 노후 전선 정비 작업을 9월 24일 진행했다.

양병오 왕정동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기동대나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향교동, 정신건강증진 협약 체결

남원시 향교동행정복지센터는 '1일 1가구 방문사업'과 연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울 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교동은 주민의 복지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동장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1일 1가구 방문사업'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 가정을 매일 방문하여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조기에 연결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다문화지원센터에 쌀 400kg전달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지난달 30일,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나찬도)에 남원 농산물인 '춘향애인' 참미 400kg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건강한 식습관 정립 및 남원쌀 소비확대를 위해 진행했으며,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나찬도)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석 지부장은 "이번 쌀 나눔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복지향상과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힘 쏟아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인터넷 전입신고자를 직접 방문해 쓰레기봉투를 전달하고,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하는 등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김모씨는 "살기 좋은 운봉이라고 해서 막상 이사를 와서 적응하려고 보니 걱정도 많았는데, 읍장님이 찾아와 친절하게 반겨주시고 각종 지원 정책까지 안내해 주시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화 체험 '망고'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은 지난달 30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드림 문화 체험 '망고'(망설이지 말고 Go)!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꿈드림 문화 체험은 그 동안 검정고시 준비와 자립역량 강화 등 각자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꿈드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화 체험에는 학교 밖 청소년 14명이 참여해 영화관람과 도자기체험을 통해 또래 청소년과 교류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은"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 체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성 향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체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문화 감수성 향상과 정서적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꿈드림은 여성가족부와 김제시의 지원으로 만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 및 교육지원(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급식지원 서비스, 건강검진, 문화체험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63-545-01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